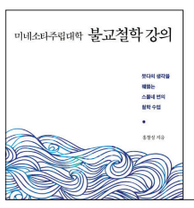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19~6/2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6	세상에 끌려 다니지 않는 단단한 마음공부	서광스님	학지사
2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혜민스님	수오서재	7	신편 승가의범	보운스님	혜안
3	사찰의 비밀(불교 상징과 문화에 대한 안내서)	자현스님	담액북스	8	월호 스님의 선가귀감 강설	월호스님	조계종출판사
4	요가 디피카	B.K.S.이헹가/현천스님	선요가	9	두려워하지 않는 힘	진우스님	불광출판사
5	정선 디가 니까야	이중표	불광출판사	10	마조어록 역주	마조도일/강승욱	운주사

불교철학 통해 찾아 헤맨 난제 힌트 발견



미네소타주립대학 불교철학 강의

홍창성 지음/불광 펴냄/1만 4800원



불교철학 정교한 측면 드러내
강의에 서양 철학의 관점 도입
논쟁 대상 난제에 제언 덧붙여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이 책은 미국 미네소타주립대서 이루어진 불교철학 강의를 기반으로, 지난 기간 교수-학생 간 불법(佛法) 토론을 주된 내용으로 삼았다. 현지 대학생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이 책의 저자인 전담 교수 홍창성<사진>의 21세기형 현답으로 그동안 우리도 잘 알지 못한 불교철학의 논리적이고 정교한 측면을 잘 드러낸 강의 모음집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불교에 대해 문외한인 미국 현지의 학생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지금 시대의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개념과 방법으로 불교철학의 핵심들, 이를 테면 '무아(無我)' '윤회(輪廻)' '연기(緣起)' 등의 기본 교리부터 불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지인 '깨달음' '열반(涅槃)'에 이르기까지 논한다.

이 책의 강의서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합리적인 걸 추구하는 미국인들답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강의이기에 불교 철학을 논리적으로 따져 가며 바라본다는 점이다. 또한 불교철학의 주요 내용을 강의함에 있어 서양 철학의 관점을 도입한다는 점이다. 사실 저자의 전공 분야는 서양 철학이다. 이는 불교철학을 강의하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데 있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책을 읽다 보면 서양철학의 걸출한 인물들,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버트런드 러셀 등의 이론(시각)과 붓다의 그것을 비교 · 분석하는 대목을 발견할 수 있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영국 공리주의 철학의 기본 원리에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불자들의 삶을 대입하기도 하고, '공(空)'의 번역어인 'emptiness'가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지, '공'을 하나의 실체로 바라보는 우리의 현실과 함께 바라보고 분석 한다. 이런 과정 속에서 붓다의 철학을 더욱 선명히 바라볼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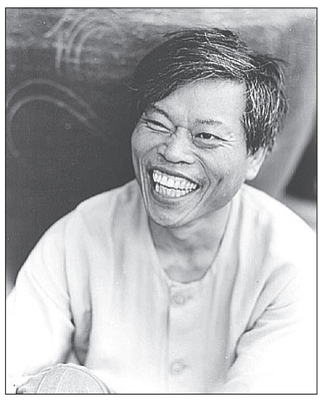
그동안 강의서 학생들이 제기한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을 적극적으로 인용하고, 그 질문에 대한 첨예한 토론과 논증을 비롯해 불교계에서도 아직 논쟁의 대상이 되는 철학적 난제에 대한 제언 등을 덧붙여 완성시킨 이 책에서 저자는 자신의 전공 분야인 서양철학의 색다른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불교철학의 정교하고, 지적이며, 논리적인 측면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불교를 공부해 오며 철학적 난제를 맞닥뜨린 이들에게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도 우리의 삶과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철학자 농부가 부처 눈으로 바라본 세상



아픈 데 마음 간다는 그말

윤구병 지음/호미 펴냄/1만 3천원



〈해인〉〈불광〉에 쓴 글 29편 모아
'영세중립 통일연방 코리아' 염송
해학적 불교용어 풀이 재미 '솔솔'

이 책은 철학자이자 농부인 윤구병<사진>이 부처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본 이 세상이야기다. 오래 전에 불교 잡지 〈해인〉지와 최근에 〈불광〉지에 쓴 글 29편을 모아 함께 실었다. 꽤 시간 차가 있는 글을 함께 묶었지만, 윤구병의 불교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때나 지금이나 시대를 앞서가며 예리하다.

선사들의 화두가 끊임없이 의심하는 데서 출발하듯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도 새롭게 질문을 하곤 한다. 그 답들을 찾아야 만이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구병이 곱씹으며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해학이 넘치면서도 세상에 대한 혜안과 중생들에 대한 연민이 가득하다. 중생을 향한 보살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아픈 데 마음이 갈 수밖에 없고 우리 모두가 앉은 자리를 되돌아보게 한다.

글은 격한 공감과 절묘함에 무릎을 치게 하기도 하고 유쾌하게 웃다가 때로는 이렇게 발칙할 수가 있나 싶을 만큼 통쾌하기도 하다. 유마의 방에서 벌어질 일에서는 유마 힐은 석가와 한 스승 밑에서 함께 배운 도반으로서 가르침을 베푸는 몫을 달리 맡았다는 설도 있다며 석가는 부드럽게, 유마는 날카롭게 찌르듯이 제자를 교화했다는 얘기를 무척 흥미롭게 묘사하고 있다. 또한 '남전의 고양이와 조주의 개' 같은 글은 화두 남전참묘(南泉斬猫)와 조주두재초혁(趙州頭戴草鞋) 장면을 지금 당장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인 양 실감나면서도 절묘하게 그 뜻을 풀어낸다.

윤구병은 몇 년 전부터 '영세중립 통일연방 코리아'를 앞당기기 위한 평화 마을 만들기에 동참하며 왜 이 땅에 하루빨리 평화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밝힌다. 어떻게 하면 함께 잘사는 세상으로 갈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뇌하며, 윤구병은 오늘도 불국토를 꿈꾸며 '영세중립 통일연방 코리아'를 염불하듯 염송한다. 더불어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사회에 산적한 문제들과 특히 쓰레기 문제 해결과 마을 공동체를 살릴 방법을 모색하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을 되짚어 본다.

우리말 지킴이로 우리말과 글을 사랑하는 윤구병이 지금 당장은 낯설지만 되살려야 할 우리말과 어려운 한자를 쉽게 풀어쓰기 위해 애쓴 흔적이 글 곳곳에 배어 있다.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하지만 금방 익숙해지고 이런 말들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은 욕구가 마구 치솟기도 한다. 그러고 딴지를 거는 듯하지만 적확한 그만의 독특하고 해학이 넘치는 불교용어 풀이는 곱씹을수록 읽는 재미가 솔솔하다.

김주일 기자



농담

종명 스님 지음/부연사 펴냄/1만 5천원

선농일치, 한국 불교 경제적 모델

이 책은 남방불교같이 탁발이 아니라면 소욕지족이라는 무소유적 삶을 위해 선농일치가 우리 불교의 경제적 모델이라 생각한 저자가 이를 좀 더 현대의 생태적 가치로 확대해 지역 공동체 도농공동체로 실현하면 수행과 포교를 일원화 할 수 있다고 보고 10년 동안 실천한 이야기들을 한데 모았다. 저자인 종명 스님은 농사 지으랴 지역민들과 함께 하랴 정말 힘도 들고 보람도 많았던 시절의 이야기들이라고 고백한다.

책은 크게 '농담' '사담' '법담' 등 세 주제로 나뉜다. 특히 '법담' 편에서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 이야기들, 즉 인물이나 사건 등을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일상에 교훈

생산 노동, 불교계 대안 중 하나
'농담' '사담' '법담' 등 세 주제로

이 될 만한 이들을 실었다. 또한 만해 스님을 비롯해 일제 독립 운동을 펼쳤던 스님들의 주장을 통해 불교개혁 당시 주요 문제가 무엇이었나를 짚어봄으로써, 근현대 한국 불교의 문제점과 지향점을 고찰 했다. 아직도 유효한 점은 없는가라는 화두를 제기한 것이다.

또한 이 책에서 저자는 생산 노동이 우리 불교계의 진일보에 대안 중 하나임을 이들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불교인들의 대사회적 활동, 즉 중생 구제의 역할이 중요함을 이들의 주장을 통해 다시 확인하면서 병원 등을 통한 구제 확대, 재가와 출가, 그리고 모든 종단을 초월해 사암연합회를 중심으로 불교대학, 생협, 봉사단, 시민 활동 등에 선택과 집중을 제안했다.

김주일 기자

조사선의 선풍을 확립하다!
전심법요·완릉록

임제 의현의 스승이기도 한 황벽은 간명하고 평이한
언어로 선의 이치를 펼치고 있어,
이 어록은 선의 정수이자 개론서로 꼽힌다.
황벽희운 저, 정운 강설/양장/288쪽/값 15,000원

금강경의 근본 종지와 낙처를 정확히 드러내다!
금강경삼가해

선사들의 선적 표현을,
원전의 심원하고 원융한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정확하게 현대적 감각으로 번역하였다!
전재강 역주, 고우스님 감수/양장/768쪽/값 35,000원

중국 백림선사의 정혜스님 법문집!
생활선의 열쇠

어떻게 인생의 질곡에서 벗어날 것인가?
불법과 세간이 둘이 아니고,
사람노릇과 성불하는 것이 둘이 아니다!
정혜 지음, 이명한 · 안영주 옮김/양장/464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